

# 시골소년 상경기



이 충 호

## 서울로 유학

시골 소년이 청운의 큰 뜻을 품고 48년 9월 서울중학교에 등교하고 보니 덕수대 제동이다 서울의 국민학교 출신들은 2,30명씩 합격하여 이반 저반 친구 찾는다고 때로 몰려 다니는데 나는 달랑 혼자 누구 하나 말 붙일 사람도 없는 외톨이었다. 충북 영동 출신인데 산간 오지라서 지금도 영동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 경부선의 딱 절반 지점이고 구름도 쉬어 간다는 추풍령이 바로 영동 이라면 아아 그런가 하는 정도이다.

내가 서울 와서 공부할 수 있었던 것은 할아버지 덕택이다. 시골에 있어 봤자 희망이 없다 하여 10대에 가출하다시피 고향을 떠나 대구에서 자리를 잡자 아버지를 공부 시켰고(대구사범) 그 뒤 서울로 와서는 친손자 외손자 종손자 등 실로 많은 아이들을 데려다 공부 시켜 집안을 일으켜 세웠다.

내가 서울중학을 지망한 것은 할아버지의 결정이다. 시골에 있는 나야 서울에 대하여 아는 것이 없고 다만 국민학교 졸업하면 부모를 떠나 형과 누나가 있는 할아버지댁으로 가서 중학교를 다닐 것이라고만 알고 있었다. 서울에 간다는 것은 좋았지만 부모님 곁을 떠날 수 있을까 걱정 되기도 하였다.

당시 형은 양정중에 누나는 이화여중에 재학중이었는데 형은 나를 경기중에 보내고 싶어 하였다. 그런데 한집에서 고종사촌이 서울중(3회)에 다녔는데 할아버지가 보니까 해방후 타교들은 동맹휴학을 자주 하는데 서울중은 한번도 스트라이크를 하지 않고 열심히 수업을 하고, 또한 집이 마포 공덕동이라 다니기도 편하다 하여 서울중으로 정하셨다고 한다. 입학시험 때는 시골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이 일부러 상경하여 사기를 높여 주었다. 그 답례로 나는 선생님이 서울 서초구 서래초등학교에서 정년퇴임식을 할 때 참석하여 기념사를 하였는데 여기 계신 모든 선생님들도 정년 퇴임식 때 45년전의 제자가 찾아 오도록 가르쳐 달라고 하였다.

9월에 입학하여 12월 첫 겨울방학이 다가오자 시골 가서 어머니를 볼 수 있다는 기쁨에 잠을 잘 수 없었다. 그때 학교 취주악대의 대원 모집이 있었는데 시골 소년 눈에는 뽀뽀 뽀뽀 나팔 부는 것이 참 멋 있어 보였다. 그래서 지원하였더니 트럼펫을 불어 보란다. 그리고 방학내내 연습을 한다기에 그만 두었다. 어머니를 보고 싶어서다. 1학년 때는 2반으로 김용묵 선생님이 담임이었는데 방학 전날 두 가지를 주셨다. 하나는 기차 할인권이요 하나는 중간시험 채점표였다. 예체능은 없고 학교시험만 있었는데 반 수석이였다. 집에 가서 부모님 기쁘게 해드리라는 뜻이었다.(김용묵 선생님은 지리 선생으로 참으로 자상 하였으며 수유리 여중 교장으로 정년 퇴임식을 가질 때 참석하여 축하 드렸다.)

### Boy Scout 활동

2학년 때는 Boy Scout에 가입 했다. 우리 학교는 서울 제10대로 아래 운동장에서 서울지구 대회를 개최 하였다. 같은 학년에는 현모군이 있었는데 6.25



때 행방불명이 되었고 1년 선배에는 정훈 이순재가 있었는데 이순재와는 6.25 2주전 관악산 3락사에서 1박2일 캠핑을 함께 하였고, 정훈은 해사출신의 해군장교가 되었는데 내가 산업은행 인사부 시절 서울법대 출신의 자기동생(서울 10회)을 입학시험에 지원케 하였다. 군 복무중 휴가를

얻어 학과시험에 합격 하였으나 면접 시험에 나올 수가 없었다. 제대 말기라 하지만 사병이라 제때 휴가를 얻을수 없었던 것이다. 60년대 초반 산업은행의 인기는 대단하여 지금의 사시에 버금갈 정도였다. 면접시험에 불응하면 무조건 탈락인데 내가 아이디어를 냈다. 국방의 신성한 의무 때문에 부득이 못나온 것이니 면접시험을 유보 하였다가 이틀 후 휴가 오면 개별 면접 하자는 것이다.

다행히 상부에서도 인정 하여서 후일 따로 내가 인사부장과 담임이사의 면접을 보게 하고 최종 합격 시켰다. 산업은행 50년 역사상 면접시험을 따로 연

기하여 실시한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다. 다행히 근무성적이 우수하여 런던사무소장에 부임 하였고 영애가 사시에 합격 하였는데 그 때 배운 영어 실력이 대단하여 영어와 법률지식을 겸비한 재원이라 판사 검사 변호사 세군데에서 서로 데려 가려고 삼파전을 벌리다가 판사로 근무중이다.

Boy Scout의 지도교사는 영어의 김영실 선생님이셨다. 선생님은 마포중점에 자택이 있어서 우리집과도 가까워 댁으로 찾아 뵙기도 하였고 3학년 때는 불과 25일이지만 담임 선생님이시기도 하였다. 6.25 다음해 대구에 있던 공군본부에 통역장교로 제신다는 소식을 듣고 영동에서 찾아 뵙기도 하였고 농협 서울시 조합장(비상근 명예직)시절에는 사무실이 내 직장인 산업은행과 가까워 인사드리러 갔었다. 시흥근처 목장 부지에 문일중고 문일여중고를 설립 하였고 안양대학교를 설립하여 교주 겸 총장으로 육영사업에도 크게 기여하고 계시다. 내가 리스회사에 재직할 때 큰 거래선이 후에 알고 보니 선생님의 만사위라 하여 놀란적이 있다. 세상은 참 좁기도 하다 싶었고 책 잡힐 일이라도 했다면 얼마나 부끄러웠을가 싶었다. 그리고 그 사위에게는 자네 부인은 막 들 지났을 때 부터 내가 봤으니 나한테는 한목 놓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어깨를 으쓱해 했다.

## 6.25발발

6.25 발발 3일만에 서울이 함락하고 질서가 없는 가운데 라디오에서 모든 학생은 정상 등교하라는 방송이 계속 되었다. 시골에서 어떻게 입학한 서울중학인데 퇴학이라도 당하면 큰일이라 싶어 약 2주동안 매일 나갔다. 정상수업은 불가능하고 학년별로 체육관 강당 아래운동장 스탠드에 집합 시키고 북녘 노래를 가르치거나 정신훈화를 하였는데 날이 갈수록 학생수는 줄어 갔다. 그러다가 7월 중순쯤인가 전학년을 강당에 집합 시키더니 학년 관계 없이 정렬 하란다. 나는 3학년이지만 키가 작아서 맨끝에서 얼쩡 되었더니 우리 앞 몇 줄째에서 선을 긋고 청소를 하란다. 키 큰 학생들은 대오를 정돈하여 수송국민학교

로 향하였고 그곳에서 다른 사람들과 합쳐 그길로 의용군에 입대 하였다고 들었다. 그래서 나는 평생 키 작은 것을 원망하지 않는다. 사회생활 하는데 체격이 크면은 한목 접고 들어가고 여자들로부터도 인기를 얻어 덕 보는 일이 많지만 만약 그 때 내가 키가 컸다면 의용군에 나갔을 것이고 그렇다면 전장의 이슬로 사라졌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키가 작았던 덕에 살아 남았으니 오히려 고마워 해야 될 것 같아서다.

식량은 떨어지고 더 이상 학교에 나갈 수 없게 되어 고향에 내려 가기로 하였다. 6백리 길을 걸어서 갔다. 미군 공습이 시작되어 큰길로는 다니지도 못하게 하여 산길을 걸어서 가자니 오르락 내리락 하여 족히 1백리는 더 걸어 7백리는 걸었을 것이다. 요사이 같이 신발이 좋은 것도 아니고 발은 부르트고 배는 고프고 ..... 식당이 있는 것도 아니니 아무 민가애나 들어가 밥을 청해서 주면 먹고 안주면 다른 집에 가고, 얼마의 사례를 할라치면 대부분 돈은 받지 않았다. 지금보다 사는 것은 못하였지만 인심만은 훈훈 하였다.

아흐레만에 고향에 당도하여보니 가족들은 다 대구로 피난가고 반파된 빈집만이 나를 맞아주었다.

### 고향학교 위탁교육

9·28 수복이 되어 남쪽으로 피란 갔던 가족과도 상봉 하고 해를 넘겨 1951년이 되니 학교들이 문을 열었다. 서울고는 부산 송도에서 피난학교를 개교 하였으나 본데 당시 시골에서는 그런 정보를 얻을 수도 없었고 알았더라도 부산 가서 공부할 형편은 못 되었다. 충북 남부3군(영동 옥천 보은)의 유일한 6년제 중학교였던 영동농업중학교가 영동농업고등학교로 승격 됨에 따라 중학교과정 학생은 부설중학교라 하여 수업을 시켰는데 나는 3학년 2학기에 그곳에 편입하여 공부 하였다. 정식으로는 나와 같이 타교에 학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청강하는 학생을 위탁생이라 하였다. 고향 학교니까 초등학교 동창생이 많아서 교

우관계는 별 불편이 없었으나 교실은 많이 파괴되어 노천 수업이 많았고 농업 고등학교이다 보니 전답에서 하는 실습이 많았다.

고등학교 진학 때 또 한번 고민하게 되었다. 아무 연고도 없는 부산 본교에 가서 공부한다는 것은 당시 형편으로는 불가능 하였으니 열외로 하고 3가지 선택이 있었다. 첫째는 다니던 영동농고에 진학 하는 것, 둘째는 영동에 신설 되는 인문고에 진학 하는 것, 셋째는 대전고에 진학 하는 것이다. 각각 장단점이 있었다. 영동농고는 역사는 있었지만 실업계라서 인문학과와의 교육이 약하고 영동고는 인문고지만 신설이라서 교사조차 없었다. 대전고는 영동에서 40Km 거리로 통학열차가 있어 서울로 유학 오지 못하는 영동 학생들은 대전에 많이 다녔다. 권혁조 (체육) 선생님이 대전고에 와 계시다는 소리를 듣고 찾아 보았다. 반갑게 맞아 주었다. 온다면 여러모로 편의를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대전에 하숙이라도 하면 모를가 통학은 문제일거라고 말씀 하였다. 통학 열차가 연착이 다반사였기 때문이다. 전시라서 군용열차가 우선인 시대다. 통학열차가 한두시간 늦는 것은 다반사라서 수업에 지장이 많을 것을 염려 하였다.

결국은 영동고를 택했다. 신설교라서 과수원의 나무를 베고 가마니로 흙을 날라다가 운동장을 만들고 과일저장 창고를 임시교실로 사용 하였다. 다만 선생님만은 좋은 분이 많았다. 서울서 피난 와 계시던 분들이 분필을 쥔 것이다. 예를 들면 고려대학교 철학과에 손명현 교수가 계신데 우리들 독일어를 가르쳤다. 2학년 때는 학도호국단 운영 위원장이 되어 도청 소재지인 청주에서 개최 되는 도 대회에 참가 하였는데 청주 소재 학교 위원장들이 텃새를 하며 시골 학교에서 왔다고 괘세를 하여 속으로 "어디 서울서 전국대회 할 때 보자. 나는 어엿한 서울고생인데 너희들 청주 출신들 올라 오면 촌에서 왔다고 괘시 하겠다"고 뇌이면서 참았다.

## 서울분교에 복학

고3 진학시 또 한번 고민 하게 되었다. 아무래도 시골학교에 있다가는 대학

진학이 어려울 것 같아 본교로 복귀 하는 것을 생각 하게 되었다. 53년 4월 3일 송도에 갔더니 대뜸 실력차가 날 터이니 한해 묵으란다. 싫다고 하였더니 시험을 보란다. 영어 국어 수학 3과목을 본 것으로 기억 되는데 3학년 편입은 가능 한 것으로 결정 되었다. 그리고 서울에 분교가 개설된 것도 알고 왔다. 영동에 와서 상의하니 서울에는 집이 있으니 무연고인 부산 보다는 서울이 낫겠다는 결론을 얻었다. 당시 기차로는 민간인이 영등포까지 밖에 갈 수 없었다. 한강을 넘으려면 도강증이 있어야했다. 다행히 영동역에는 미군 RTO (Railroad Transportation Office)가 주둔하고 있어 도강증 싸인을 받고 서울로 올수 있었다. 학비 마련하고 짐 꾸리고 오자니 시간이 걸려 4월 26일쯤 학교를 찾았다. 본관과 강당은 영국군이 사용하고 도서관과 체육관을 학교로 사용하는데 서울서도 1년을 묵으란다. 부산서 20일전에 시험 봐서 통과 되었다고 했는데도 믿지 않는다. 요즈음 같이 통신이 발달 되었다면 그 자리에서 전화 하여 확인할 수도 있으련만 전시에 무슨 연락수단이 있는가. 내 말은 통하지 않았고 그래서 다시 시험을 쳤다. 다행히 합격하여 3학년 이과(당시 문과 이과 두반이 있었음)에 복교하게 되었다.

시골과는 학력 차이가 많았다. 우선 수학에서 미적분의 진도가 상당히 나가 있는데 나는 미적분에 입문조차 하지 않은 상태였다. 부모형제 시골에 두고온 외로움을 오로지 공부로 달랬다. 그 보람이 있어 중간고사에서는 반 수석의 영광을 안았고 졸업식에서는 우등상과 개근상을 받을 수 있었다. 1953년 9월 부산 임시수도가 서울로 환도함에 따라 부산의 본교가 환도하여 서울분교와 통합되어 3학년은 문과 이과 각각 두반으로 편성 되었다. 서울과 부산 학생을 섞어서 반을 구성 하였으므로 부산에서 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과는 처음 만나게 되고 한학기를 함께 공부 하였다.

## 이과 지망

시골학교에서는 한 학년이 한반뿐이라서 문과 이과에 별 관심이 없었다.

또한 그때까지만 해도 장래 무엇이 되겠다고 명확하게 정해 놓은 것도 아니었다. 그런데 서울로 복교 하려니까 문과와 이과중 어느 반에 편입 할 것인지를 묻는 것이 아닌가. 인생의 장래가 결정 되는 운명의 기로에 선 순간이었다. 부모님이 시골에 계시니 누구와 진지하게 상의할 분이 없었다. 내 나름대로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 원래 내 소질은 문과이다. 중학교 1학년 역사시간에 전학년 톱이라고 칭찬 받은 적이 있다. 지금 생각해도 경제사(經濟史)를 전공 하였으면 내 특기를 가장 잘 살렸을 것 같다. 수학 보다는 국어를 좋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이과를 선택 하였다. 6.25 사변을 경험해 보니 의사나 기술자는 체제가 변해도 자기 몫을 하는데 문과는 체제가 바뀌면 설 땅이 없었다. 장래에 보다 안전하게 대비 하려면 이과가 무난할 것 같아서다.

이런 생각은 나만 한 것이 아니다. 당시의 시대상황이 그렇기도 하였다. 일례로 우리나라 굴지의 피아니스트 박정윤 동문이 고3 서울분교 시절의 내 짝이었는데 그는 이과 공부를 하면서 서울대 화학과를 졸업 하였다. 그러나 졸업후 화학분야에 종사한 적은 없고 연세대 한양대의 음악교수로 활약 하다가 정년을 맞았다. 지금 같은 분위기라면 당연히 서울음대에 진학 하였을 것이고 서울대에서 봉직 하였을 것이다.

## 대학 선정

졸업이 가까워 오자 대학을 선택 하여야만 했다. 당시 서울고의 우등생이면 전국 어느 대학 어느과를 지망 하여도 합격에는 문제가 없었으므로 내가 어디를 찍느냐가 문제였다. 기왕에 이과를 전공 하였으니 의대 공대 아니면 육사이다. 시골에서는 서울대 합격하여도 알아 주지 않는다. 서울에 있는 어느대학 다녀도 모두 서울 대학생이다. 요즈음 미국의 하버드 스탠포드 가리지 않고 그저 미국유학 갔다고 말하는 것과 비슷하다. 그러나 육사제복을 입으면 보는 눈이 달라진다. 전시라서 군인의 힘이 막강하기도 했고 의식주를 포함한 모든 학

비가 국비였음으로 오늘날 사법시험 합격수준의 축하를 받고 아들 잘 두었다는 칭송을 받던 때다. 이런 상황은 서울에서만 자란 사람은 잘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우선 내 경우 육사는 1차로 고려대상에서 제외 되었다. 시골에서의 우월함과 경제적 여건을 고려 하면 아깝기는 하지만 내 키가 받쳐 주지 않았다. 장군이라면 체격이 장대하고 눈이 부리부리 하여야 어울리지 않는가. 나는 키 순서로 하자면 반에서 작은 쪽 두서너번을 넘어 보지 못했으니 안될 말이었다. 키 작은 덕택에 의용군 징집에서 면제 되었으니 불평은 없지만……. 다음으로 의대를 생각 하였다 전쟁의 피난길에서도 청진기 하나만 가지고 다니면 선생님 소리 듣고 먹을 것 걱정 안해도 되는 것은 분명 매력적이었다. 그러나 교육 과정이 2년 긴데다 월급이 적은 인턴 레지던트 군의관 까지 마치려면 일반 대학에 비하여 10년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았다. 내 경제 사정이 그렇게 여유롭지 못하였다. 그래서 결국 공대로 낙찰 되었는데 공과대학에는 과가 10개나 있다. 그 중에서 가장 문과적인 과가 섬유과였다. 원래 내 소질이 문과쪽이기에 공대중에서도 문과적인 데를 찾은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당시 우리나라 공업은 경공업 수준이라 방직공장이 전부라 하여도 과언이 아니었다. 졸업후 취직이 제일 잘 되는 곳이 섬유과였기 때문이다.

대학졸업후 취직은 금융기관이 되었고 대학의 전공이 쓰인 적은 하나도 없었다. 은행에 근무 하면서 대학 안 나온 셈 치자, 상고 나온 사람도 잘 근무 하지 않느냐, 다행히 나는 고등학교만은 한국 제일의 학교를 나왔으니 누구한테 꿀릴 것이 없다는 자신감을 가졌다.

내 일생을 살아 오는 동안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마다 나는 천하 수재가 모이는 서울고 출신이라는 프라이드가 나를 좌절 시키지 않고 꺾듯이 버티면서 어려움을 극복하는 원동력이 되어 주었다. 그래서 나는 서울고 출신임을 무한한 자랑으로 여기면서 오늘까지 살아 왔으며 이 긍지는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다.